



한라수목원 '꼬마도서관' 개관

반딧불이작은도서관(관장 양창근)은 12일 한라수목원 공원에서 '2026년 꼬마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꼬마도서관'은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시민들이 산책 중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 들 수 있도록 제주 시내 주요 공원 17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누리는 소박하지만 깊은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각 꼬마도서관마다 지정된 전담 자원봉사자들은 수



시로 도서를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한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시스템은 꼬마도서관이 지역 사회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의 서재'로 자리 잡게 한다.

농협제주본부 조생양파 논의 워크숍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이준협)는 지난 10~11일 올해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 중앙본부, 공판장, 육지부 양파 소포장 출하농협 관계자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양파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제주산 조생양파의 거래처 다변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한 가격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농협체소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김승만)은 올해산 조생양파 2만4500t 판매를 목표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연계해 ▶톤백 공급 확대 추진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활용 수급조절과 저장사업 실시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식 도예가 제주적십자사에 특별성금

양경식 도예가는 최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7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적십자사 사옥 이전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 개소를 축하하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도내 취약계층 지원과 위기가정 지원, 긴급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전적지 순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양형석)는 지난 5~10일 지부 회원과 청룡·맹호부대 전우회원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월남전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월남전 전적지를 방문해 참전 당시를 회상하며 전쟁의 아픔과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귀포 관광극장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정방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극장 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인인 제주연구원은 오는 5월 말까지 대안 발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8차례의 추진협의회 논의와 2차례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별 씬숨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 동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별(대표 김병섭)은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서 실시하는 '션숨이가 바른 기업'에 가입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했다.

제주별은 제주적십자사 후원회에 가입해 매월 정기적인 기부와 집행과정 참여를 통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하도초 마을 생태·문화체험학습 실시

하도초등학교(교장 허지연)는 지난 10일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자연과 역사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

이날 학생들은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별방진 일대를 찾아 마을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직접 살펴봤다.



안덕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전달

제주안덕농협(조합장 이한열)은 지난 9일 '2026년 제주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안덕농협 조합원 자녀 5명에게 총 190만원을 전달했다.

이한열 조합장은 "인재 육성과 다문화 가정의 농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부소방서 우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제주동부소방서(서장 강성부)는 지난 11일 우도면 일원에서 도서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내 최초로 유인도서에서 진행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이다. 우도면 공동이용시설 화재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초기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도동 '쓰담쓰담 프로젝트' 심의

제주시 외도동(동장 박기완)과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안식)는 지난 10일 동주민센터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갖고 '쓰담쓰담 - 외도물길 20리' 프로젝트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연 4회 계절별로 외도동 지역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다'와 '외도동을 쓰다듬다'라는 의미를 담은 지역 특색시책이다.



한림로타리클럽 아동후원금 기부

조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로타리클럽 회관에서 진행된 국제로타리3662지구 한림로타리클럽(회장 고창문)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아동후원금 120만원을 전달받았다.



도체육회-예총 전국체전 성공 개최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2일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국체육대회 홍보에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체육 발전 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은 가족 문화예술 체험 교육 늘린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가족문화 예술 공연'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문화 예술 공연'을 처음 선보인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목표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자연 속 어울림 교육'이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도 새롭게 준비했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돈내코 야영

수련장에서 여는 생태환경교육이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이 기간 초등학교생 400명(총 10기)을 모집해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새활용 공예,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활동과 생태놀이가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아트스쿨'도 확대한다.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읍면동, 청소년문화시설에 더해 올해는 평생교육 시설인 서귀포오석학교도 찾는다. 오석학교에선 캘리그라피, 노래교실 등 2개 강좌가 15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현진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의 감동이 일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귀리 마을 지신밧기 행사 개최

제주시 하귀리2리민속보존회(회장 문동원)는 지난 8일 하귀리2리 일원에서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주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신밧기' 행사를 개최했다.



중문석재사 '대천고팡' 운영 성금 기탁

서귀포시 중문석재사(대표 박복현)는 지난 1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대천동 나눔장고 '대천고팡'에 기탁했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공모전 환경보전센터 이달 27일까지 작품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센터가 '2026년 제3회 어린이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기후 위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제주 어린이의 건강한 하루'이다. 작품은 8월 도화지 규격에

맞춰 크레파스, 색연필, 수채물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도내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 오후 5시까지다. 제주도 환경보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4월 6일 발표된다.

홍성철 환경보전센터장은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라게시판

☐ 알림 ☐ 은행사업 신청 및 업무처리에 참고
▶한글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제주지부 사무실 이전 ※농지
연공금단 1층 ▶이전 사무실=서귀포시 월드컴포14(강정동232) 서귀포혁신도시메디컬센터 4층 403호 ▶대표전화=064-750-8838